칼 럼

장 기 채 주 필

이 봄은 탄생이며 새로운 출발이다

이 봄에 흥분해 보자. 때 되면 맞는 봄 이지만 늘 봄은 새롭기만 하다.

그래서 봄은 탄생이며 새로운 시작이자 출발이다. 세상의 달력은 1월이 시작이지만 캠퍼스의 달력은 3월이 시작이다.

꽃 내음 가득한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온다. 입춘이 지난지도 오래고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우수도 지나갔다.

개구리는 잠에서 깨어나 물장구를 친다. 바로 경칩(驚蟄)이 어제 6일이었다.

온 산천초목에서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린다. 새봄과 더불어 탄생되는 신입생의 계절이다. 3월의 시작은 새내기의 계절이기도 하다.

또 3월의 시작은 언제나 새롭기만 하다.

여기에는 희망과 기대가 부풀어 있고 그 사이에는 불안과 초조의 두려운 기운이 스쳐가는 긴장된 시기도 함께 있을 것이다.

풀과 나무들이 제 빛을 띠기 시작하며 새 살을 내밀 때 캠퍼스는 또한 새 숨소리로 가득 찬다.

그 싱그러움 속에서 크게 한 번 호흡해 보면 들숨과 날숨 속에 지난 것과 새로운 것에 대한 보냄과 맞음의 의미가 새로워진다.

수많은 가능성을 지닌 채 출발하는 모든 신입생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들은 틀림없이 새로운 활력이 되어 기여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이들 신입생에게 공통됨이 있다면 새로운 환경과의 만남일 것이다. 미지의 세계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크게 부담이 생길 것이다. 오늘 맞은 봄은 처음 맞은 봄이어서 더욱 새롭다.

이미 지난 그 어느 해의 봄이 아니기에 처음이며 그래서 새로운 탄생이자 시작이도 또 희망이다.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미성년자에게 머무는 초·중·고의 '신입생'은 어른들이 거들어 주는 일이 중요하다.

특히 3월의 캠퍼스는 활기에 넘친다.

흥분과 기대에 들뜬 새내기들의 호기심에 찬 눈빛만으로도 대학은 생동한다. 하지만 대학진학이 인생의 목표였던 새내기들에게 인생이라는게 대학에 입학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학문적 지식만이 아닌 인생의 지혜를 터득해야 한다. 오로지 대학 입학시험 스케줄에 맞추어 고교시절, 전인생을 보내야 했던 신입생들, 무엇을 위해 공부를 해야 하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맹목적으로 입시공부를 해왔을 그들에게 자율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법도 알아야 한다.

이제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숨을 골라야 할 때다. 그래서 탄생은 벅찬 감동이며 새로운 시작이다.

시작은 곧 희망의 서곡이다. 어떤 이는 가슴 벅차하며, 또 어떤 이는 떠밀려 하는 출발이라도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흥분이라고 말했다. 지나온 길이 무슨 상관이랴.

우리 생에 최고의 날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아니겠는가. 그 날들이 그대들 앞에 펼쳐져 있는데 어찌 흥분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대들의 매일매일은 생애 최고의 날들인 것이다. 전쟁처럼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제 출발선에 다시 섰다.

그동안 학교와 학원과 과외로 이어지던 미로에서 해방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그러나 슬프게도 오늘날 대학은 만신창이다. 학문의 전당이란 말은 무색해진지 오래다. 실용의 미명아래 기초학문은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그저 돈 잘벌어 출세해서 부자로 사는 길을 찾기만 바쁘다.

대학을 입학하는 신입생들이여. 대학은 민족의 생명이며 그 갱생과 부흥의 저력이며 미래의 비전이다. 국가와 사회에 대한 지도적 책임과 세계로 약진하는 조국에 대한 엄숙한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신입생들이여, 이 세상은 아름답다. 무릇 모든 신입생은 올바르게 확립된 가치와 정선된 지식을 배우고 진리를 익힐 권리가 있다. 신입생들이여, 여러분의 뜻 깊은 입학과 새로운 장도를 축하한다. 특히 대학 신입생은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서 제 힘으로 풀어라. 기댈 언덕은 없다. 물러설 곳도 없지 않는가.

기 고

임 동 현 함평소방서장

봄철 안전대책, 주의와 예방이 중요

만물이 생동하는 봄철이 왔습니다. 따뜻한 봄은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지만, 역으로 해빙기가 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건조한 날씨 탓도 있지만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재로 인한 피해 소식이 연일 언론을 통해 들려옵니다.

애써 일궈 온 가게, 일터, 가정 등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하면서 느끼는 비참함과 상실감은 그 어느 것에 비견되겠습니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예방했더라면 하는 뒤늦은 후회는 다시 행복했던 과거로 결코 뒤돌리지는 못합니다.

피해자들과 그 가족에게 큰 상처를 안겨 준 재난은 이처럼 한번 발생하면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후 대응보다도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또한 재난 대응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빙기에는 건축물, 공사장 등 각종 시설물이 균열이 생겨 붕괴로 이어지는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 혹시 모를 대형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촉각을 곤두세우게 됩니다.

저희 함평소방서에서는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사고예방 및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발생하는 모든 사건·사고를 관계기관에서만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며, 국민 스스로 평소 재난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안전에 관심을 가져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재난은 총체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그 중심은 여러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안전 불감증'을 경계해야 됩니다.

항상 내 주변에 대한 세심한 주의로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여 우리 국민 모두 혹시 발생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가할 것입니다.

社 說

학비 신용카드 납부 정착돼야

그동안 학비의 신용카드 납부 불가 조치는 학부모들의 많은 원성을 사왔다. 현금납부의 고집으로 불편을 겪어왔던 것이다.

올해 3월부터 전국 초·중·고 전체학교의 학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니 늦었지만 다행스런 조치로 받아들인다.

교육부는 최근 학부모가 부담하는 초중고 학비를 모든 학교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납부는 2016년 34개교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지난해 전체 고등학교에 적용됐다. 3월부터는 모든 학교급으로 확대 시행된다.

학교 신용카드 납부에 참여하는 신용카드사는 BC카드·KB국민카드·NH농협카드·신한카드 등 4개사다. 가맹점 수수료는 학교급 규모에 따른 월정액 방식으로써 수수료 전액을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부담한다. 학부모가 해당 카드사에 할부 신청할 경우 교육비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학교에서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학부모에게 신용카드 납부에 대한 안내(가정통신문 등)를 하면 학부모가 자동납부 가능한 신용카드사에 직접 신청(인터넷 또는 유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시·도교육청에서는 일선 학교에서 제도가 혼선 없이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다른 카드사들도 납부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 전면 시행을 비롯해 학생·학부모의 학교 교육 이용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학교회계의 투명성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한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배우는 千 字 文

攝 다스릴 섭
職 직분 직
從 좇을 종
政 정사 정

攝職從政

▷뜻: 벼슬을 잡아 정사(政事)를 좇으니 국가(國家) 정사(政事)에 종사(從事)함.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湖南新聞
대표전화 (062) 224-5800
편집국 (062)222-5547
팩 스 (062)222-5548
광고국 (062)222-5544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 5층)
서울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명예회장 이신원 회 장 정재조
발행·편집인 겸 부 사 장 최산순
총괄이사 논설실장 이홍재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